

예술인엔 일자리 주고 시민들엔 문화 서비스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부가 인건비(약 80만원 수준)를 지원하는 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들은 문화재 관리, 지역 가수 음반 작업, 음악 치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사)참여자치정보센터는 광주 전

재 보존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광주미술협회는 미술, 음악, 미디어를 매체로 문화적 치유 활동을 담당할 문화복지사업단 '라파(Rapha)'를 구성했다.

핵심 사업은 광주 전남 지역 병원을 직접 방문, 문화예술적 활동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문화재예방관리센터 직원들은 광주·전남 지역에 흩어진 1천 200여건의 문화재를 매일 점검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사진은 중심사 석탑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문화재 관리·가수 음반 작업 등 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들 '눈길'

남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예방관리센터(단장 나기백)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7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광주·전남 지역 1천 200여건의 문화재를 매일 점검하고, 모니터링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직원들은 담당 문화재를 선정, 수시로 문화재를 찾아다니며 관리하고 있으며 5월에는 광주전남지역의 문화재 백서를 발간한다.

최근에는 주인택(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이오희(서울시 문화재위원), 위광철(한서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등 문화재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 문화재 예방 관리, 문화

지역 화가들을 비롯, 미디어, 음악 등 총 24명으로 참여인력을 구성했으며 전남대학교병원(학동·화순),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독립음악연대 네버마인드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첫 행사는 오는 4월께 전대 화순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는 '문화도시 일자리 사업단'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 출신 가수들의 가사리 프로젝트인 '광주 가수 명곡 모음 음반 제작'이다. 지난 10일에는 김유성·양은주·김태희·이애자·노도희·황선복·양승필·김광범·황라천씨 등 올버시스 음반 녹음에

참여할 가수들을 위한 후원회를 개최했다.

문화도시 일자리 사업단은 또 대중 교통문화공동체, 문화도시 홍보 유망단 등도 운영하고 있다.

(사)나눔노인복지회는 음악 치료 예술공연 사업단 '뮤지 테라컬(Music Theracal)'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뮤지컬'을 통해 음악치료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최근 극작가, 단원, 작곡가 등 17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지역 작

가, 미술기획자 등 70여명으로 '무돌아트컴퍼니'(대표 김상운)를 구성했다. 컴퍼니를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창작단(단장 한희원)과 각종 사업들을 전개할 기획단(단장 김운기)을 꾸린 상태.

특히 참여 작가들의 작품 판매와 전시, 기획전 등을 개최하기 위해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나인갤러리를 임대했으며 아트상품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둠의 시대 햇불 밝혔던 '그분의 삶'

故 김수환 추기경 일생 담은

평전·잠언집·회고록 발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철학을 이어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 추기경의 삶과 철학, 신앙을 담은 책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우선, 평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책만드는집 펴냄). 1971년 가톨릭잡지 '창조'의 편집주간을 맡으면서 발행인이었던 김 추기경과 만나 40년 가까이 인연을 맺었던 구중서(73) 한국가톨릭 문인 회장이 그간 수집했던 자료를 모아 평전을 냈다.



한진만 흥익대학교수의 수묵화 '추기경과 성경'

평전은 "독재정치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없는 암흑의 시대에 교회가 침묵만 지키다보면 그리스도가 짊어질 짐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김추기경의 현실 참여 배경을 설명한다.

또 1990년대 말 김추기경이 진보진영에서 받았던 비판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는 '선물일주의'의 피상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 지녔던 의식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지난달 16일 선종한 김 추기경의 말과 글 가운데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을 따로 모아 시구처럼 편집한 잠언집 '바보가 바보들에게'(산화화진주 펴냄)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추기경의 자서전인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나 김 추기경의 옛 강론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을 따로 모아 인생론과 용서, 영원, 믿음 등의 소주제로

분류해 엮었고 책 끝 부분에 김 추기경의 연보와 문장의 의미 등을 덧붙였다.

또 정진석 추기경의 추모사와 이해인 수녀의 추모시 등을 서문 형식으로 붙여 김 추기경에 대한 추도의 의미를 다시 새겼다.

한편,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기 이전 마지막 몇 년간의 이야기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대목을 추가한 회고록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평화방송·평화신문 펴냄) 증보판도 출간됐다.

이 책은 2004년 김 추기경의 유일한 회고록으로 나온 초판본에다 김 추기경이 건강이 나빠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직전인 2007년 여름 서울 회화동 주교관에서 7차례에 걸쳐 구술한 부분을 추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백야문화회 시낭송회

1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김계운 회장 이만수 회장

시인들의 모임인 백야문화회(회장 김계운·광주 김병원 원장)가 시를 가곡으로 작곡하여 함께 나누는 '시가 노래되어 창작가곡 연주회'를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시인들의 시에 남도사랑작곡가회(회장 이만수) 회원들이 뜻을 합쳐 선율을 붙이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더해 노래하는 이날 연주회에서는 김계운 시인의 '월출산 안개'와 김재균 시인의 '삼천배' 등의 시가 낭송되고 가곡으로 불려진다.

또 이지수, 김귀래, 민병휴, 김학진, 오영숙, 최순애, 박삼숙, 고선우, 김원자, 김복남, 염해숙, 김정웅, 김민중씨 등의 시도 낭송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베토벤과 멘델스존의 대화'

김기용 첼로 독주회 15일 광주문예회관

김기용 첼로 독주회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베토벤과 멘델스존의 대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김 씨는 베토벤의 '마적 중 '처녀인가 부인인가'의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op.66', '첼로 소나타 1번 F장조 op5'를 들려준다.

또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멘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2번 D장조 op.58'도 선사한다.

전남대를 졸업한 김씨는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뒤셀도르프 벤라트 성에서 베토벤 첼로 소나타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피아노 반주는 불가리아 출신으로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석사 과정을 졸업한 이스크라 플라메노바씨가 맡는다. 문의 010-4604-229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22회 광주시 미술대전

5월 11·12일 작품 공모

광주시는 '제22회 광주시 미술대전'의 작품을 공모한다. 한국미술 광주시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전은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건축, 판화, 문인화, 디자인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접수한다.

오는 5월11~12일 이틀간 작품을 접수하며, 같은 달 14일 심사를 거쳐 15일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화 서양화는 오는 4월29~30일 작품 사진을 미술협회 사무실에 접수해야 하고,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해 작품을 접수받는다. 출품료는 1점당 5만원.

출품원서는 오는 5월10일까지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시지회, 지역 각 미술대학, 예술의거리나 화방·필방 등 7곳에서 교부한다.

입상작 시상식은 6월5일, 입상작은 같은달 5~10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062-222-8053.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정태영씨 '박화성과 이난영' 발간



광주일보 기자 출신 정태영(44)씨가 식민지 시대 목포 문화계를 상징하는 두 여인 박화성과 이난영의 삶과 애환을 담은 책 '박화성과 이난영 그들의 사랑과 이증'을 출간했다.

'목포재발견시리즈 10'으로 기획된 이 책은 대표적 신(新)문화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작가로 꼽히는 박화성(1904~1988)과, 노래 '목포의 눈물'로 널리 알려진 이난영(1916~1965)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상세히 풀어냈다.

저자는 일제 치하 당시 친일 논란 등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기록들을 재조명하고 박화성-이난영 코드의 비밀을 시민들의 애환으로 해석, 새로운 문화코드로 부활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정씨는 '목포광장목포문화의 수수께끼', '목포의 화맥' '김영자, 소설 같은 그림인생' 등을 썼으며, 현재 지역신문인 '목포투데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안내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p>메가박스 구.원당역사거리 ☎1544-0600</p> <p>1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4) 최고급관 2관 (디지털)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제) 3관 왓치맨 (184) 4관 작전 (184) 5관 13일의 금요일 (184) 6관 언데드 (154)/벤자민버튼의시간은가꾸로간다(124) 7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 8관 워낭소리 (전제)/더 레슬러 (184) 9관 뉴욕은 언제나 사랑중 (154)</p> <p>•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다.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구세주2 (154) 2관 핸드폰 (184) 3관 언데드 (154) 4관 작전 (184) 5관 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제) 6관 문프린세스-문에이커의비밀(전제) 7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54)</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좌석의 주차장 300대 • 금로 살아생전</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앞 마이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관앞편)</p> <p>1관 13일의 금요일 (184) 2관 뉴욕은 언제나 사랑중 (154) 3관 프로스트VS닉슨 (124)/핸드폰 (184) 4관 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제) 5관 작전 (184) 6관 왓치맨 (184) 7관 워낭소리 (전제) 8관 벤자민버튼의시간은가꾸로간다(124)/리스트 프로젝트(124) 9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 10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p> <p>• 초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실사 상영합니다 1588-7941 상영시간: 10시, 12시, 14시, 16시, 18시, 20시, 22시</p>	<p>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p> <p>1관 뉴욕은 언제나 사랑중인터내셔널(184) 2관 벤자민버튼의시간은가꾸로간다(124) 3관 그는당신에게반하지않았다(154) 4관 (디지털)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제) 5관 왓치맨 (184) 6관 (디지털)워낭소리 (전제) 7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p> <p>• 매일실사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p>	<p>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이포박스 ☎267-7777</p> <p>1관 구세주2 (154)/핸드폰 (184) 2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 3관 작전 (184) 4관 워낭소리 (전제) 5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 6관 과속스캔들 (124) 7관 쏫버스 (124) 8관 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제) 9관 벤자민버튼의시간은가꾸로간다(124) 10관 뉴욕은 언제나 사랑중인터내셔널(184)</p> <p>• 500여대 넓은 주차장(8시간 무료) • 385 매일실사 • 이등 통상사 & OK 캐시백 카드 할인 혜택</p>	<p>제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800</p> <p>1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154) 2관 13일의 금요일 (184) 3관 왓치맨 (184) 4관 드래곤볼 에블루션 (전제) 5관 작전 (184)/벤자민버튼의시간은가꾸로간다(124) 6관 언데드 (154)/프로스트VS닉슨(124)</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p>
---	--	--	--	--	---